

# 광주과학고 현장학습 특별감사 국민청원

특수목적고인 광주과학고가 세금으로 1학년 전체 학생들의 유럽 현장학습 비용을 지원한 데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특별감사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혈세로 (학생)1인당 100만원씩 지원해 유럽 여행기는 광주과학고 특별감사를 요청합니다'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시돼 있다.

지난 6일 시작된 청원에 이날 오전 현재까지 498명이 동의했다.

청원자는 "광주과학고는 전교생이 290명도 안되는 작은 학교지만 영재고등학교라는 이유로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매년 4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받아 운영되는 학교다"며 "관광 프로그램에 국민의 혈세를 쓰는 것은 단 한 푼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청원자는 "다른 학교는 급

## 세금으로 학생 1인당 100만원씩 지원 형평성 논란 교장·행정직원 사전답사 명목 공짜 유럽여행 비판

식비가 없어서 밥을 굶는 아이들이 있고 교복 살 돈이 없어서 다 헤진 교복을 입는 아이들이 수두룩하다"며 "그런데 광주과학고는 (학생)1인당 100만원과 함께 연구회까지 주는 유럽 4개국 현장학습을 추진한다"고 비판했다.

청원자는 "계다가 실제로 학생들을 인솔하지도 않을 학교 교장과 행정직원까지 받아가며 이미 공짜 유럽여행을 다녀왔다"며 "세월호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제도인 사전답사를 악용해 공짜여행의 기회로 삼았다"고 성토했다.

청원자는 "비상식적인 예산집행

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광주과학고에 대한 특별감사를 하고 광주시교육청에도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귀족학교 귀족수학여행은 없어져야 할 적폐이자 이런 위유성 관공에 국민혈세는 단 한 푼도 쓰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과학고 1학년 전체 학생 97명과 인솔교사 8명은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프랑스와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등 유럽 4개 국가로 현장 학습을 떠난다.

학생 1인당 371만원의 경비가 소요되며 학교 측이 학생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하고, 학생들이 나머지 271만원을 부담한다. 학교 지원금은

영재학교로 지정돼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매년 받는 지원금으로 충당했다.

일반학교의 경우 광주과학고처럼 해외 현장학습에 100만원씩 지원하는 사례가 없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유럽 방문 현장도 파리 상제리제거리, 개신문, 에펠탑, 쿠키박물관, 스위스 융프라우, 독일박물관, 이탈리아 밀라노 등 대부분 관광일정과 비슷하다.

광주과학고는 "예비 과학자로서 시야를 넓히고 글로벌 리더로서의 소양을 갖추기 위해 이번 현장학습을 교육과정의 하나로 추진했으며, 소요 비용도 타 학교와 비교하면 저렴한 편"이라며 "교장이 사전답사를 다녀 온 것은 학기 중이라 교사들이 수업과 평가문제로 시간을 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고 해명했다.

조인호 기자

## 해남서 열흘 전 실종 추정 할머니 숨진 채 발견

열흘 전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8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8일 해남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0분경 해남군 황상면 한 호수에서 A(80·여)씨로 추정되는 여성이 숨져 있는 것을 경찰과 소방당국이 발견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한 작업장에서 야적된 양파가 비에 젖지 않도록 덮는 작업을 마친 뒤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진분홍색 블라우스 초록색과 검정색이 섞인 흰 꽃무늬 일바지를 입고 있었으며, 붉은색 장화를 신고 있었다.

경찰은 이날 발견된 여성의 인상착의와 A씨가 신고 있던 장화가 비슷한 점 등으로 미뤄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또 A씨가 평소 가벼운 치매 증상이 있었다는 주민들의 말을 토대로 신원이 확인되는데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 술집 종업원 폭행 뒤 지구대서 행패 40대 입건

광주 서부경찰서는 8일 술집 종업원을 폭행한 뒤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폭행 등)로 정모(4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정 씨는 이날 오전 0시35분경 광주 서구 지평동 한 술집에서 종업원 이모(25) 씨의 목을 잡는 등 폭행을 휘두르고 상무지구대에서 1시간 30여 분 동안 행패를 부린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민취한 정 씨는 돈이 없어졌다며 이 씨를 폭행했으며, 출동한 경찰에 의해 지구대로 연행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 여객선 선착장 접안시설 들이받아 49명 부상

7일 신안군 팔금도의 한 선착장에서 여객선이 선착장 접안시설을 들이받아 승객 49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날 오전 10시50분경 신안군 팔금도 고산선착장에서 216급 여객선 A호가 접안을 시도하던 중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선착장 접안시설을 들이쳤다.

A호는 승객 91명·승무원 3명 등 총 94명과 차량 22대를 싣고 오전 10시30분경 신안 송공여객선터미널에서 출항했다.

여객선 접안 시도에 따라 하산을 하기 위해 서서 기다리던 일부 승객들이 사고 충격으로 넘어지며 부상을 입었다. A호는 외관상 별다른 파손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이후 경상자 5명은 팔금도로 입도했으며, A호는 부상을 입은 강모(72·여)씨 등 승객들을 태우고 압해도 송공여객선터미널로 곧바로 회항했다.

강씨 등 7명은 경상으로 분류돼 119구급차가 목포지역 병원으로 이송했다. 치료를 희망하는 승객 37명도 관광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을 겸진 받았다.

목포해경은 A호 선장과 승객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중이다.

## 60대 여성, 강도 위장 남편 청부 살해

최근 부산의 한 주택에 괴한이 침입해 7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사건은 피살된 남성의 아내가 강도사건으로 위장해 남편을 청부살해하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8일 지인에게 남편의 살인을 청부한 A(69·여)씨와 돈을 받고 강도로 위장해 A씨의 남편을 살해한 B(45)씨에 대해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 20분경 부산 해운대구 한 주택에 침입해 자고 있던 A씨의 남편 C(70)씨를 흉기로 찌르고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또 귀가한 C씨의 딸과 A씨를 흉기로 위협해 결박하고, 현금 24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 사건은 A씨가 평소 사이가 나쁜 남편과 금전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던 중 B씨에게 돈을 주기로 하고 살인을 청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남편을 살해하는 대가로 B씨에게 빚을 탕감해주고, 범행 이후 3000만원을 주기로 하고 살해 계획을 실행하도록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공범이 더 있는지 수사를 벌이고 있다.

## 소방청, 55만개 건축물

### '화재안전 특별조사'

소방청은 9일부터 55만개 건축물을 대상으로 화재안전 특별 조사를 실시한다.

8일 소방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화재위험성이 높고 대형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건축물 약 55만개동이 점검 대상이다. 1단계로 2018년도에는 영화관,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17만2000개동에 대해 798개 조사반 2755명이 참여해 조사를 실시한다. 442여명의 예산이 투입된다. 2단계로 2019년에 진행된다. 38만 2000동이 대상이다.

소방청은 이번 조사에서 정부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 청년·신종년 1061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 보조인력으로 활용한다. 또 건축·소방·전기·가스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참여단으로 조사반을 구성했다. 조사반은 화재 위험요인과 안전시설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대응책을 마련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특별조사 결과를 토대로 건물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화재안전정책 수립과 인명구조, 화재진압작전 등에 활용할 예정"이라며 "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해 건물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화재위험요인을 보수·보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나는 물총축제 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연세로 일대에서 열린 '제6회 신촌물총축제'에 참여한 시민들이 물총싸움을 하고 있다.

## 교통사고 사망 10명 중 1명 빗길에서...여름철 특히 주의

최근 5년 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중 10% 가까이 비 오는 날 사고로 인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3분의 1은 여름철 사고를 당했다.

8일 도로교통공단이 최근 5년(2013~2017년) 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만2952명 중 2008명(8.75%)은 빗길을 달리다 목숨을 잃었다.

특히 장마 기간인 여름철에 피해가 집중됐다. 우천시 교통사고 월별 발생 현황을 보면 7월이 1만2477건으로 전체의 15.4%를 차지해 점유율이 가장 높았다. 사망자와 부상자도 각각 302명(15.0%), 1만9853명(15.7%)으로 가장 많았다.

6~8월로 기간을 넓혀보면 비오는 날 교통사고는 34.4%(2만7776건) 수준이다. 사망자와 부상자 발생 비중도 32.2%(646명), 34.8%(4만4097명)로 여름철이 다른 계절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빗길 운전은 맑은 날씨에 비해 제동거리도 많이 확보해야 하고 시야가 흐려 위험한 운전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사전에 차량의 안전상태를 꼼꼼히 살피는 동시에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빗길 안전운전의 최고 요령이라고 조언했다.

이순열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젖은 비가 도로를 훼손해 크고 작은 웅덩이가 생기는데 물이 고인 웅덩이가 위로 주행하게 되면 자칫 핸들조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한 손 운전은 삼가야 한다"며 "타이어 마모 상태와 공기압, 와이퍼 및 워셔액 상태 등을 꼼꼼히 점검하고 전조등 켜기를 생활화하라"고 전했다.

뉴스스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 농지매입비축사업
- 농지임대수탁사업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 농지연금사업
- 농지규모화사업

### 농어촌 행복파트너 농지은행사업

농어촌의 행복에 지지 않는 별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농어민들이 지금보다 더 큰 행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지은행은 영농개시에서 은퇴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립니다

-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20~39세 창업후계농에게 5~10년 장기임대차, 장기저리(30년, 1~2% 농지매입자금 용자 지원)
- 농지임대수탁사업**  
자경 어려운 농지소유자 농지의 임대를 위탁받아 전업농에게 5년 이상 장기 임대
- 농지연금사업**  
65세 이상 고령농업인 농지담보로 매월 연금처럼 생활안정자금 지급

- 농지매입비축사업**  
고령은퇴 이후 농업인 농지 매입비축을 통해 농지시장 안정 도모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자연농에 부채 등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매입 후 10년간 임대보장, 경영 정상화 지원
- 농지규모화사업**  
농지매입 임대차 교환분할을 통한 농가의 영농규모 확대 지원